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8)

국제적인 학회로의 도약을

승실대학교 이철희*

한국정보과학회 15년사에 컴퓨터의 발달과정과 관련지어 학회의 역사를 여명기(1960~1972년), 기반조성기(1973~1975년), 정착기(1976~1980년), 발전기(1981~1988년)로 분류하였으니 창립후 15년이 지난 1988년도부터는 도약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도약기의 전반기인 1988년 11월~1990년 12월까지 2년 2개월간 제9대 회장직을 맡아서 학회를 운영하게 된 것이 본인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영광스러웠다.

학회의 역사와 승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의 역사가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며 본인이 이 분야에 참여한 1973년도에 학회가 창설된 것이니 지난 4반세기 동안 학회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계산학과를 창설하여 모집된 30명의 학생들이 4학년이 되어 졸업후의 진로 문제를 걱정하던 1973년에 승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로 발령받아 교육을 담당한 이후 교과과정과 졸업생의 취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을 때, 정보과학회가 창설되어 학술활동 및 정보교환의 장이 열렸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975년도부터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당시 학회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으며 그때의 어려움들은 전임회장님들의 회고에서 언급된 것으로 믿는다. 학회의 운영이 어려웠던 1970년대 후반에는 전산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국내에 도입된 컴퓨터가 많지 않았으며, 정보화에 대한 인식도 적었으며 전산분야에서 일하는 전산인들도 하부조직에서만 일하

고 있었기에 학생들은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매우 회의적이었다.

기반조성기에서 발전기(1973~1988년)까지 매우 어려웠던 15년간 1~8대까지의 전임 회장들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15년사를 임대가 아닌 우리학회 소유의 사무실에서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연사 발간의 구상과 계획은 8대 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마무리가 늦어 1989년 11월에 발간할 수 있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도 여러 특별 회원사의 적극적인 도움에 의해 계획된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재임기간에 지금의 학회사무실에서 이전환관식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임 김종상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믿어 학회사무실에 들릴 때는 항상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재임기간에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조직위원장직 등을 맡아서 애써주셨던 부산대학교 정기동 교수님, 동국대학교 홍영식 교수님, 과학기술원 오영환 교수님, 육군사관학교 신장균 교수님들의 학회활동에 대한 열정이 생각나며, 특히 모교이며 오랫동안 봉직했던 육군사관학교에서 1990년 제17회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이 본인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도약은 88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는데 정보산업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크게 도약을 했기에 학회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1989년에 세계 정보처리 및 통신대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올림픽대회 운영 및 관리의 전산화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과 국내외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학술대회로서 정보산업 발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9대 회장

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믿는다.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와 역사가 정보과학회의 역사와 비슷해서 1988년에는 특수대학원인 정보과학대학원을, 그리고 1996년에는 정보과학대학이 창설되었다.

창립 25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국내 어느 학회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처음에 논문지 겸 소식지 형식의 정보과학회지를 발간하던 것이 지금은 매월 학회지 1권 논문지 3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1973년도에는 전국에 5개 전자계산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184개의 대학과 155개의 전문대학에 컴퓨터 관련 학과가 최소 한 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니 회원 확보면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난 25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이제는 국제적인 학회로 도약할 때가 왔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첫째는 논문지구독 및 논문게재에 주로 관심을 갖는 회원 이외의 많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모든 회원에게 배부되고 있는 학회지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확

대하고 연구회 단위의 단기 강좌들도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을 엄선해서 개최하기 바란다.

둘째는 국제학술 교류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학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보다 모든 회원들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도 많은 논문을 제출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우리 정보과학회를 널리 선전해서 논문지가 SCI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우리 회원 모두가 노력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기존의 다른 학회에서도 정보과학 분야의 학술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유사한 학회가 다른 명칭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정보과학회내에 15개의 전문 연구회도 존재하며, 새로운 학술분야가 생길 때는 또다른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에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과학 분야의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학회이다. 특히 지난 25년간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신 모든 회원들이 재속해서 관심을 가져 후학들이 이 학회를 통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정보화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학회로 발전되길 바란다.

● 제24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일 자 : 1997년 10월 24일(금)~25일(토)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 문 의 처 : 한국정보과학회 사무국

Tel. 02-588-9246